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이해 : Sen의 인간 존재실현력(human capability) 패러다임을 통한 접근*

최혜지**

본 연구는 조손가족 연구의 패러다임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인간의 존재적 역량과 선택적 자유를 강조한 Sen의 인간 존재실현력 패러다임을 조손가족 연구에 적용하여 선행연구의 시각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조손가족 조부모의 존재실현력을 성별과 연령대별로 고찰하고, 존재실현력이 성취된 기능으로써 양육부담과 양육기쁨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했다. 이차자료를 이용한 사회조사연구로 설계했으며, 100명 조손가족 조부모의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남성 조부모는 여성 조부모보다 존재실현력의 모든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연령대에 따른 존재실현력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의 양육부담은 질병유무, 수리력, 관계의 질에 의해 유의미한 영향을 받았으며, 양육기쁨은 일상생활기술, 관계의 질, 유희역량, 재정상태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단어: 조손가족, 양육부담, 양육기쁨, 존재실현력, Sen

I. 문제제기

본 연구는 조손가족을 가족해체의 결과로, 조손가족 조부모를 비정시적 역할 전이의 희생자로 접근해 온 조손가족 연구의 패러다임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조손가족은 성인자녀의 구조적 또는 기능적 부재를 전제로 한다는 이유에서 주로 병리적, 박탈론적 관점에 의해 설명되었다(박경애, 2007). 이들 시각은 조손가족 조부모의 취약성과 손자녀 양육의 부정적 경험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했으나, 조손가족 조부모와 손자녀 양육의 긍정적 면을 간과하는 한계를 보였다.

조부모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손자녀의 생계를 책임지며, 신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hjchoi@swu.ac.kr

하고 노동집약적 일상을 반복해야 하는 취약(危弱)한 존재로 조명되었다(김혜선, 2004). 그러나 노화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 약화에도 불구하고 조손가족 조부모는 평생동안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온 생산적인 존재이다. 특히, 조손가족 조부모는 성인자녀의 부재 하에 자신과 손자녀의 삶을 존속시켜 온 기능적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존 패러다임은 조부모의 문제에 주목함으로써 이들의 생산적 역량을 간과하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손자녀 양육은 조부모에게 부여된 과업으로 조명되었으며, 조부모는 자유의지와 관계없이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수동적 존재로 자리 지워졌다(Goodman, 2005). 그러나 조손가족은 가정해체의 위기에 조부모가 자유의지에 따라 손자녀 양육을 결단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다.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대부분이 위탁가정, 시설,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족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연구(문선화, 2001)는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자발적 선택의 결과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기존의 패러다임은 새로운 역할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선택한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조부모의 역량을 간과해 왔다. 손자녀 양육은 조부모에게 부담과 고통을 야기하지만 동시에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정의할 생산적 기회를 제공한다(박경애, 2007). 그러나 기존 패러다임 속에서 손자녀 양육은 조부모에게 부모라는 비정시적(off-time) 역할로의 회귀를 강요하여, 조부모의 정서적, 사회적 고통을 심화하는 부정적 경험으로 조명되었다(Burton, 1996). 특히 손자녀 양육의 경험은 우울,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공전(共轉)되며, 부정적 측면만이 배타적으로 강조되었다. 따라서 손자녀 양육이 조손가족 조부모의 삶에 갖는 긍정적 의미와 결과는 배제되어 왔다.

Sen에 의해 주창된 인간 존재실현력¹⁾ 패러다임은 인간의 존재적 역량과 성취된 기능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병리적, 박탈론적 시각과 대조적이다. 인간 존재실현력 패러다임은 개인이 성취한 기능(achieved function)은 그의 존재실현력 즉, 자신이 가치 있다고 선택한 방식대로 존재(being)하거나 행동(doing)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인간 존재실현력 패러다임은 교육수준, 경제력을 포함한 도구적 능력²⁾과 가치 있다고 판단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궁극적 능력을 구분한다.

1) Human Capability는 Sen의 이론적 설명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방식과 시각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었다. 인간 능력(예: 강철희·이홍직·홍현미라, 2005) 또는 인간 가능성(예: 최균·서병수, 2006)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박성복(1999)이 소개한 인간 존재실현력을 차용하였다.

2) Sen은 도구적 자유와 궁극적 자유로 표현했으나, 이 글에서는 문맥상 이를 도구적 능력과 궁극적 능력으로 번역하였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인간 존재실현력 패러다임은 첫째, 경제력을 포함한 도구적 능력에 기초해 조부모의 취약성을 강조한 기존 패러다임과 달리 손자녀 양육자로서의 삶을 선택한 조부모의 궁극적 능력에 주목한다. 또한 인간 존재실현력 패러다임은 손자녀 양육의 결과를 부정적 산물을 중심으로 탐색한 기존 패러다임과 차별적으로 조부모가 자신의 존재실현 능력을 통해 손자녀 양육자로서 성취한 기능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인간존재실현력 패러다임은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을 이해하는 데 병리적, 박탈론적 패러다임의 시각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틀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본 연구는 인간존재실현력 패러다임에 기초해, 조손가족 조부모의 존재실현력과 성취된 기능을 고찰함으로써 조손가족 연구의 시각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인간존재실현력 패러다임

인간존재실현력 패러다임은 욕구와 효용을 중심으로 사회발전을 조명하는 시각에 대한 Sen과 Nussbaum의 윤리적 문제의식으로부터 발전되었다.

1) 논의의 배경

사회발전에 주목한 대부분의 이론들은 사회발전의 궁극적 목적으로 인간복지 증진을 표명한다. 사회발전의 궁극적 목적에 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사회발전으로 이해하는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한다. Sen은 기존 이론들이 사회발전을 이해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인간존재실현력 패러다임을 발전시켰다. 즉 Sen의 인간 존재실현력 패러다임은 복지(well-being)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인간발달을 무엇으로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존 주장들과의 시각적 차이로부터 태동되었다. 사회발전에 대한 Sen의 문제의식을 자극한 대표적 이론은 신자유주의 이론과 기초욕구이론이다. 신자유주의 이론(Neoliberalism)은 공리주의적 전통에 영향을 받아 사회발달을 효용의 극대화로 해석한다(Fukuda-Parr, 2003). 기초욕구이론은 인간의 물질적 욕구, 비용, 물질의 전달에 초점을 두어, 사회발전을 물질에 기반한 인간기초욕구의 충족으로

조명한다. Sen은 이들 이론이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사회발전을 조명하며, 사회발전의 주체인 인간을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Sen, 1997).

Sen은 사회발전을 경제발전과 등치관계로 조명한 기존 접근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소득증가를 포함한 도구적 자유는 사회발전의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님을 강조했다(Sen, 1997). Sen은 사회발전은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회발전이란 희망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궁극적 자유와 권리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2) 이론적 가정 및 주요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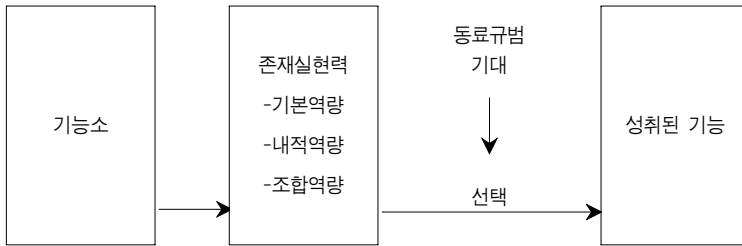
(1) 이론적 가정

Sen의 인간 존재실현력 관점의 핵심논점은 사회발전에 대한 시각이다. 인간 존재실현력 관점은 기존 경제이론이 경제적 성장을 사회발전으로 개념화한 것과 달리 경제성장은 사회발전의 도구에 불과하며, 사회발전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확대라고 주장한다. 이때 자유란 인간이 원하는 삶의 방식과 존재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궁극적 자유이며, 권리란 궁극적 자유를 제한하는 비자유적 요소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Sen은 성취된 기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성취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고, 이를 성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곧 사회발전이라고 주장한다.

인간 존재실현력 관점의 두 번째 논점은 개인이 성취할 기능을 선택하는 자유의 폭과 기능성취의 역량은 인간 존재실현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인간 존재실현력이란 다양한 삶의 방식 중 하나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적 역량을 의미한다(Shin, 2008). 즉 Sen(1997)은 인간 존재실현력을 확대함으로써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궁극적 자유의 확대와 희망하는 삶을 영위하는데 기본이 되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권리의 확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세 번째 논점은 무엇이 인간 존재실현력을 결정하는가에 대한 가정이다. 인간 존재실현력은 재화와 용역을 비롯해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인 기능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개인이 선택하여 실현시킬 수 있는 기능소가 다양할수록 가치 있다고 판단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존재적 역량이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인간 존재실현력 패러다임은 궁극적 자유의 확대과정을 기능소, 인간 존재실현력, 성취된 기능사이의 선형관계를 통해 설명한다.

<그림 1> 인간존재실현력 관점의 도식



자료: Robeyns(2003)을 근거로 재구성

특히 Robeyns(2003)는 지금까지 설명한 인간 존재실현력 관점의 이론적 연계를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개인이 어느 정도 다양하고 풍부한 기능소를 지니고 있는가에 의해 가치 있다고 판단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적 역량이 결정되며, 개인의 존재적 역량에 따라 선택된 삶의 방식을 실현하고, 의미 있다고 판단한 기능을 성취하는 정도가 결정된다.

(2) 주요개념

① 기능소: 기능소는 개인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영역의 요소들로 인간 존재실현력의 기초가 된다. 기능소는 개인의 삶에 존재하거나 개인의 삶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다. 기능소는 단순한 재화와 서비스로 대변되는 외적 자원 그 자체나 또는 단순한 심리적 자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이루어낸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삶의 조건들이다(박성복, 1999). 모든 기능소는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가치의 가중치는 개인과 사회마다 차이를 보인다.

② 인간 존재실현력: 인간 존재실현력은 가치 있다고 판단한 것을 행하고 (doing),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방식(being)대로 자신의 삶을 실현해 갈 수 있는 개인의 존재적 역량이다(박성복, 1999). 따라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조부모로 사는 것을 가치있는 삶으로 선택하고, 이를 실현해 가는 개인적 역량이 곧 조부모의 존재실현력이다. 수식적으로 존재실현력은 한 인간이 지닌 다양한 기능소들의 벡터(vector)로 표현된다(박성복, 1999). 즉 존재실현력은 개

인의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능소들이 결합된 조합적 총체이다. 이는 손자녀의 양육자로서 조부모의 존재실현력은 조부모의 삶을 이루는 다양한 기능소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뜻한다.

③ 성취된 기능: 성취된 기능이란 개인이 자신의 삶에 가치 있다고 선택한 기능을 존재실현력을 통해 현실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 가치 있다고 판단한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존재실현력에 의해 결정된다. 높은 존재실현력량을 소유한 개인일수록 선택을 고려할 수 있는 성취된 기능 역시 다양해진다. Robeyns(2003)는 이 과정에서 자신감, 동료집단의 규범,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의 기대가 개인이 어떤 기능을 성취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선택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한편 도구주의적 가족주의가 뿌리 깊은 우리사회의 문화적 특성상 개인의 기능선택은 사회적 기대와 윤리적 규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가정된다.

3) 존재실현력의 성인지적 고찰의 필요성

Nussbaum과 Glover(1995)는 특히 인간 존재실현력에서의 성별차이를 강조한다. 남성 중심적 사회구조는 교육을 포함해 존재실현력을 성장시키기 위한 투자와 기회로부터 여성을 제도적으로 소외시켜왔으며, 가사와 양육의 책임은 여성의 존재실현력을 제어해 왔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근거한 교육과 사회화는 선택과 투자가 집중되는 영역의 차이를 낳아, 성별에 따라 존재실현력이 어떤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발전되는지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존재실현력은 사회문화적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시간에 따라 강화와 퇴화를 경험하는 동적인 개념으로, 생의 단계에 따라 변화를 거듭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조손가족 조부모의 존재실현력은 성별과 조부모의 연령대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가정된다. 따라서 조부모의 성별과 생의 단계를 고려하여 인간 존재실현력을 살펴봄으로써, 조손가족이라는 공통성에 가려져 배제되기 쉬운 조손가족 조부모의 인간 존재실현력에서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4) 국내선행연구

인간 존재실현력은 경제학에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윤리적 성찰을 투영한 관점이다. 특히 개념과 논점의 추상성과 임의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론보다는 패러다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되어 왔다. 이 같은 특성에 따라 인간의 삶

의 질과 복지에 대한 의미 있는 패러다임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인간 존재실현력 패러다임은 사회복지학문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못했다(최균·서병수, 2006). 사회복지 분야에서 존재실현력을 적용한 연구로는, 빈곤연구의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서 인간 존재실현력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탐색한 개념적 연구(최균·서병수, 2006)와 두 편의 실증연구가 전부이다. 실업자의 재취업 분석에 인간 존재실현력 패러다임을 적용한 강철희 외의 연구(2005)는 실직자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실현력의 성별차이를 검증했다. 인간 존재실현력 관점을 통해 실직여성의 고용정책을 고찰한 홍현미라(2005)의 연구는 기술수준, 근속기간, 의료비지출, 혼인여부 등의 인간 존재실현력 지표가 실직여성의 재취업을 유의미하게 설명한다고 밝혀 인간 존재실현력 관점의 유용성을 실증했다.

2. 조손가족 조부모 실태 및 연구동향

1) 조손가족 조부모의 실태

조손가족 조부모는 만 18세 이하의 손자녀와 동거하며, 손자녀의 경제, 사회, 정서, 신체, 교육적 욕구를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조부모를 의미한다. 조손가족 조부모의 규모는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못한 채 몇몇 간접 지표를 통해 추정되고 있다.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조부모와 15세 이하의 손자녀만으로 구성된 2세대 가구는 전체 가구의 0.36%인 42,225 가구에 달했다. 특히 2005년 조손가구는 58,101가구로 5년 사이에 65% 증가했다. 손자녀의 연령을 18세 이하로 확대하고, 한 가구에 조부와 조모 모두 거주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조손가족 조부모는 최소 58,101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최해경(2002)은 1998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2000년 현재 전체 노인인구 337만 명 중 3.6%에 해당하는 121,300명이 조손가족 조부모일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2009년 현재 조손가족 조부모는 전체 노인인구 5,220,000명의 3.6%인 약 188,000명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조사마다 조손가족 추정치에 적지 않은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조손가족에 대한 조작화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수치는 가족구조를 지표로 조손가족을 추정한 것으로, 기능적 조손가족은 배제된 과소추정의 가능성이 높다.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3년 경상북도 내 읍면지역의 조손가족은 모두 2,300여 가구, 2005년 전남 전지역에 거주하는 조손가족은 약 4,600여 가구로 나타났다.

2) 연구의 동향

국내에서 조손가족이 독립적인 연구대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이후로 조손가족 연구는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학문적 역사를 지니고 있다. 더불어 제한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연구의 편수 또한 학술지 발표를 기준으로 30여 편에 불과해 조손가족에 대한 학문적 이해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성에 따라, 조손가족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조손가족 조부모에 대한 국내 연구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전개되어 왔다. 첫째는 손자녀 양육에 따른 조손가족 조부모의 경험을 결과론적 방향에서 고찰하는 연구이다. 이들 연구는 조손가족 조부모의 현재 상황을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산출물(outcome)로 조명하며, 특히 조부모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에 주목한다. 둘째는 손자녀 양육과 관련된 조부모의 특성을 원인론적 방향에서 고찰한 연구들이다. 이들 연구는 손자녀 양육에 개입된 조부모의 경험과 특성을 현재 손자녀의 삶을 조형해낸 원인으로 조명한다.

목적에 기준으로 조손가족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조손가족 조부모의 삶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둔 연구들이다(성지혜, 2001; 김정은, 2002; 최해경, 2002; 김혜선, 2004; 이미영, 2007). 이들 연구는 조손가족의 형성과정을 고찰하거나, 조부모의 양육환경,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등 실태분석에 주력했다. 둘째, 손자녀 양육의 산물(by-product)인 조부모의 심리·정서적 건강이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려는 연구들이다. 주로 우울, 양육스트레스, 생활 만족도로 개념화된 조부모의 심리·정서적 건강을 조부모와 손자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양육환경을 통해 설명하고자 했다(김미혜·김혜선, 2004; 김혜선, 2005; 최해경, 2006; 이정화·한경혜, 2008). 셋째, 조손가족 조부모의 심리·사회적 건강을 유사 인구집단과 비교하는 연구들이다. 조손가족 조부모의 우울과 일반 조부모의 우울을 비교한 연구(최혜지, 2008) 등이 대표적 예이다.

3. 연구모형 전개

1) 개념의 조작화

(1) 인간 존재실현력

인간 존재실현력은 패러다임적 성격이 강하며, 이론적 정교성이 낮다. 따라서 존재실현력에 대한 해석의 임의성이 크기 때문에 존재실현력의 분석지표와 측정

은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최균·서병수, 2006). Qizilbash(1996)가 Nussbaum에 앞서 존재실현력의 구성요소로 건강수준, 공중위생, 휴식, 기초적인 지적 능력, 자기 존중, 자율성, 자유, 즐거움, 지식, 유의미한 사회적 관계, 삶의 의미로 제시한바 있다. Sen과 함께 존재실현력 패러다임의 기초를 설계한 Nussbaum은 존재실현력의 구성요소로 10가지 역량을 제시하였으며, 존재실현력 패러다임을 적용한 국내 연구에서 존재실현력의 조작화된 지표로 주로 적용되고 있다. Nussbaum(2007)이 제시한 존재실현력의 10가지 역량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기사망하지 않고 정상수명까지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생존역량이다. 둘째, 양호한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균형있는 영양공급이 가능한 신체적 건강의 역량이다. 셋째, 자유롭게 이동하고, 폭력적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신체적 통합역량이다. 넷째, 문자해독력, 숫자 계산력을 비롯해 지각을 이용하고, 상상하고, 사고하며, 합리화할 수 있는 역량이다. 다섯째, 타인이나 사물에 애착을 갖고, 사랑하고 돌보는 정서역량이다. 여섯째, 선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고, 삶의 계획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실천적 논리역량이다. 일곱째, 타인과 함께 생활하고,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며, 자기존중의 사회적 기반을 갖는 소속의 역량이다. 여덟째, 동물, 식물과 조화롭게 공존하고 이들을 배려하는 역량이다. 아홉째, 웃고, 유희하고, 여가활동을 즐기는 유희역량이다. 마지막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정치적 선택에 효과적으로 참여하여,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환경을 통제하는 역량이다.

본 연구는 이상에서 살펴본 문헌에 근거해, 조손가족 조부모의 존재실현력을 Nussbaum이 제시한 구성요소별로 <표 1>과 같이 지표화 했다. Nussbaum이 말한

<표 1> 존재실현력 구성요소별 지표

영역	Nussbaum이 제시한 구성요소	본 연구를 위한 지표
1	정상수명까지 삶을 지속하는 생존역량	- 진단 받은 질병 유무
2	양호한 신체적 건강유지	- 주관적 신체적 건강
3	자유롭게 이동하는 신체적 통합역량	- 일상생활기술
4	문자해독력 수리력등의 지각이용역량	- 문자해독력 / 수리력
5	타인이나 사물에 애착을 갖는 정서역량	- 손자녀와의 관계의 질
6	비판적 사고를 하는 실천적 논리역량	없음
7	사회적 상호작용, 소속의 역량	- 사회적 관계의 크기
8	동물 식물과 조화롭게 공존역량	없음
9	웃고 여가를 즐기는 유희역량	- 삶의 즐거움
10	자산유지의 물질적 환경 통제역량	- 주관적 재정상태

생존역량은 질병 없이 정상수명까지 생을 연장하는 역량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질병유무로 지표화 하였다. 양호한 신체적 건강유지는 자신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한 주관적 신체적 건강을 지표로 하였다. 신체적 통합역량 요소는 자유로운 이동성 여부를 포함해 일상생활 수행에 요구되는 신체적 능력과 관계되므로 일상생활기술능력으로 지표화 하였다. 지각이 용역량은 Nussbaum 자신이 문자해독이나 숫자계산력 등으로 개념화함에 따라 한글해독력과 수리력으로 조작화했다. 정서역량요소는 타인이나 사물과의 애착관계 형성의 건강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손자녀와의 관계의 질로 지표화 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 및 소속의 역량은 평소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해 온 사회적 관계의 크기로 조작화했다. 웃고 여가를 즐기는 유희역량은 삶의 즐거움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 지표화 하였다. 자산을 유지하고 물질적 환경을 통제하는 역량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지표화 하였다. Nussbaum이 제시한 비판적 사고를 하는 논리적 역량과 동물, 식물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역량은 이차자료의 특성상 적절한 지표가 없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성취된 기능

조부모가 성취할 가치가 있다고 선택할 수 있는 또는 선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능은 다양하다. 가족의 문화전달자, 성인자녀의 조인자, 시민사회의 봉사자, 경제적 생산자 등 조부모는 자신의 존재실현력을 기반으로 가치 있다고 판단한 기능을 선택해 성취하게 된다. 특히 조손가족 조부모는 선택 가능한 기능 중 손자녀 양육자로서의 기능을 선택한 경우이다. 손자녀의 조부모가 아닌 대리부모의 기능을 선택함에 따라 일반적인 조부모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며, 사회적 참여나 경제적 참여를 통한 기능 역시 제한된다. 따라서 조손가족 조부모의 성취된 기능은 손자녀의 양육자로서의 기능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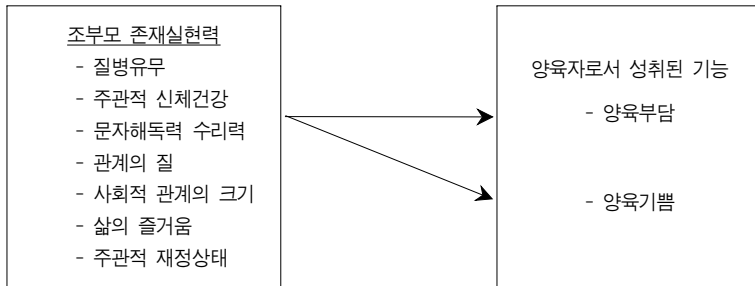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자로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기능하는가는 역설적으로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나 우울을 통해 검증되었다. 기능을 역기능의 극단으로 조명하는 시각에서는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기능의 정도를 드러내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심리적 복지감의 이중 요인 이론(Two Factor Model)은 긍정적 심리와 부정적 심리는 한 축의 양극이 아닌 서로 독립적인 차원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조부모 자신이 선택한 손자녀 양육자로서의 성취된 기능은 기존의 박탈론적 시각에 근거한 양육부담은 물론 손자녀 양육이 야기하는 긍정적 산물을

통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조손가족 조부모의 성취된 기능은 손자녀 양육자로서의 양육부담과 양육기쁨의 두 차원으로 개념화 하였다.

2)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Robeyns이 도식화한 인간 존재실현력의 이론적 틀에 근거해 조손가족 조부모의 존재실현력이 양육자로서 조부모의 성취된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 모형은 <그림 2>와 같이 상정하였다. 개념적 모형을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조손가족 조부모의 인간 존재실현력은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조손가족 조부모의 인간 존재실현력은 손자녀의 양육자로서 성취된 기능인 양육부담과 양육기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림 2> 개념적 분석틀



Ⅲ.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및 분석자료

본 연구는 사회조사연구로 설계되었으며, 분석에는 ‘충주시 조손가족 실태조사’의 2차 자료가 이용되었다. ‘충주시 조손가족 실태조사’는 충주시 교육청에 의해 파악된 총 187개 조손가족 중 조사에 응한 100개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각 가족마다 한명의 조부모와 한명의 손자녀로 이루어진 100개의 조부모와 손자녀 양자관계(dyad)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한 가구내에 조부와 조모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손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조부모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두 명 이상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가장 연령이 높은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자료수집은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3개월 간 수행되었으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대면면접법을 이용하였다. 면접은 2회의 면접원 교육을 마친 유급 면접원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두 명의 면접원이 짝을 이루어 한 면접원은 조부모를, 다른 면접원은 손자녀를 동시에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응답이 불성실한 두 개 사례를 제외한 98명 조부모의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2. 연구변수 및 측정도구

1) 인간 존재실현력

조부모의 신체적 질병유무는 '의사로부터 진단명을 받은 질병이 있습니까?'라는 하나의 질문을 이용해 측정했다. 응답은 '예'와 '아니오'로 이원화하여 측정하였다. 조부모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조부모가 평가한 자신의 신체적 건강상태로 조작화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응답은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측정했고, 높은 점수는 양호한 신체적 건강을 의미한다. 일상생활기술능력은 일상생활기술척도를 통해 측정했다. 일상생활기술척도는 목욕, 옷입기, 화장실 이용하기, 잡자리 준비하기, 대소변 가리기, 식사하기에서의 독립성을 묻는 6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은 '혼자못함'에서 '혼자가능함'까지 3점 척도로 측정되며, 높은 점수는 높은 정도의 일상생활기술능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가 0.83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의 문자해독력과 수리력은 각각 '한글을 쓰고 읽으실 수 있습니까?'와 '숫자를 읽고 계산하실 수 있습니까?'라는 하나의 질문을 통해 측정했다. 응답은 '예'와 '아니오'로 이원화하여 측정했다³⁾.

사회적 관계의 크기는 가족의 수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하고 있는 친구와 이웃의 수의 총합으로 측정하였다. 관계의 질은 '가정환경진단척도' 중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부모-자녀관계 하위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응답은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측정하며, 높은 점수는 긍정적 관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가 0.72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희능력은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측정했다. 응답은 '그렇지 않다'를 0점, '그렇다'를 2점으로 한 3

3) 문자해독력과 수리력은 조사대상자의 보고에 의존해 측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자해독력과 수리력을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점 척도로 측정했으며, 두 응답의 총합이 사용되었다. 높은 점수는 높은 정도의 유희능력을 의미한다. 주관적 재정상태는 가족의 재정적 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5점 척도로 측정했다. 높은 점수는 여유있는 재정상태를 의미한다.

2) 양육자로서의 성취된 기능

조부모의 양육부담은 Lawton과 동료들이 개발한 'Caregiving Appraisal Scale-Short Form' 중 부정적 경험을 묻는 8개 문항을 이용해 측정했다. CAS-SF는 가족수발의 일반적 경험을 묻는 척도이기 때문에 전 문항을 조손가족 조부모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였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높은 점수는 높은 수준의 양육부담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가 0.80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양육기쁨은 Lawton과 동료들이 개발한 'Caregiving Appraisal Scale-Short Form' 중 긍정적 경험을 묻는 4개 문항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가 0.78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조부모의 존재실현력은 빈도분석과 기술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른 존재실현력의 차이는 교차분석과 t-test를 통해 분석했으며, 연령대별 존재실현력의 차이는 교차분석과 ANOVA를 통해 검증하였다. 조부모의 존재실현력이 조부모의 성취된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경로분석을 통해 분석했으며, 통계분석에는 SAS와 AMOS 통계패키지가 사용되었다.

4. 분석대상자

조부모의 평균연령은 66.83세 였으며, 50세 이하가 3.0%, 51세 이상 60세 이하가 19.3%, 61세 이상 70세 이하가 51.0%, 71세 이상 80세 이하가 24.4%, 81세 이상이 2.0%에 해당했다. 조부는 19.3%에 불과했으며 조모가 80.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결혼상태는 기혼 유배우자 45.9%, 사별이 47.9%, 이혼이 1.0%, 별거 3.0%, 기타 2.0%로 약 50%의 조부모가 무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학인 조부모는 34.7%, 초등학교를 졸업한 조부모가 52.0%, 중학교를 졸업한 조부모가 7.1%, 고등학교를 졸업한 조부모가 5.10%,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조부모가 1.0%인 것으로

<표 2> 조손가족 조부모의 특성

	구분	빈도(N)	백분율(%)
연령	50세 이하	3	3.0
	51-60세	19	19.3
	61-70세	50	51.0
	71-80세	24	24.4
	81세 이상	2	2.0
성별	남	19	19.3
	여	79	80.6
결혼	기혼유배우자	45	45.9
	사별	47	47.9
	이혼	1	1.0
	별거	3	3.0
	기타	2	2.0
교육	무학	34	34.6
	초졸	51	52.0
	중졸	7	7.1
	고졸	5	5.1
	대졸 이상	1	1.0
직업유무	있다	22	22.4
	없다	76	77.5
재정	매우 어렵다	45	45.9
	어렵다	27	27.5
	그저 그렇다	12	12.2
	여유 있다	11	11.2
	매우 여유 있다.	3	3.0

나타났다. 조사 당시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조부모는 22.4%,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조부모는 77.5%로 대부분의 조부모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재정상태에 대해서는 45.9%의 조부모가 매우 어렵다, 27.5%가 어렵다, 12.2%가 그저 그렇다, 11.2%가 여유있다, 3.0%가 매우 여유 있다고 답했다.

IV. 연구결과

1. 조손가족 조부모 존재실현력의 성별, 연령별 차이

1) 질병 유무

조부모의 24%는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질병이 없었으며, 76%의 조부모는 하나 이상의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조부모는 57.9%, 여성 조부

모는 16.0%만이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질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질병 유무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chi^2=14.77$). 연령대에 따라서는, 65세 미만 조부모의 21.6%, 75세 미만 조부모의 24.0%, 75세 이상 조부모의 31.2%가 의사부터 진단을 받은 질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진단받은 질병이 없는 조부모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연령대별 질병 유무의 차이는 유의미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0.68$).

2) 주관적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는 46%의 조부모가 매우 나쁘다, 28%가 나쁘다, 12%가 보통이다, 11%가 좋다, 3%만이 매우 좋다고 답했다. 자신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보통이다, 좋다, 또는 매우 좋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조부모는 전체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 가운데는 63.2%가, 그리고 조모 가운데는 17.3%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보통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조부가 평가한 주관적 건강상태가 조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chi^2=16.83$). 연령대별로는 65세 미만 조부모의 23.5%, 75세 미만 조부모의 28%, 그리고 75세 이상 조부모의 25%가 자신의 건강을 보통이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주관적 건강상태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chi^2=0.22$).

3) 일상생활기술능력

조부모의 일상생활기술능력은 최소 3점에서 최고 12점의 비교적 넓은 범주를 보였으며, 평균 9.0점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도움없이 모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부모는 전체 43.0%였으며, 모든 일상생활기술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조부모도 41.4%에 달했다. 조부의 일상생활기술 평균은 8.36, 조모는 평균 9.15로 조모의 일상생활기술 능력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t=-1.04$). 연령대별 일상생활기술능력은 65세 미만 조부모가 10.09($sd=2.70$), 75세 미만이 8.52, 75세 이상이 8.25로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조부모의 일상생활기술이 높게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65세 미만의 조부모와 65세 이상의 조부모 사이에서의 일상생활기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3.62$).

4) 문자해독력

34%의 조부모가 무학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부모의 78%가 한글을 읽거나 쓰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의 94.7%, 조모의 74.1%가 한글을 읽고 쓰는 것이 가능했으며, 문자 해독이 가능한 조부모의 비율은 남성 조부모 사이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chi^2=3.89$). 연령대별로는 65세 미만 노인의 91.2%가 한글 사용에 어려움이 없는 반면, 75세 미만은 72.0%, 75세 이상은 68.8%로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한글 사용이 자유로운 조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했으나 그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chi^2=5.28$).

5) 수리력

82.8%의 조부모가 숫자를 읽거나 덧셈과 뺄셈 정도의 기초적인 계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는 89.5%, 조모는 81.3%가 수리능력을 지니고 있어, 수리능력에서의 성별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0.73$). 연령대별로는 65세 미만 조부모의 94.1%, 75세 미만 조부모의 75.5%, 75세 이상 조부모의 81.3%가 수리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 수리력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chi^2=4.92$).

6) 관계의 질

조부모와 손자녀와의 관계의 질은 평균 18.90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최소 8점에서 최고 25점으로 비교적 넓은 범주를 보였다. 조부와 손자녀의 관계의 질은 평균 19.77, 조모와 손자녀 사이의 관계의 질은 평균 18.71로 조부가 손자녀와 상대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부모의 성별에 따른 손자녀와의 관계의 질에서의 차이는 유의미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0.96$). 연령대별로는 65세 미만이 18.85, 75세 미만이 18.87, 75세 이상이 19.12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손자녀와의 관계의 질은 증가했으나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F=0.03$).

7) 사회적 관계

조손가족 조부모는 가족을 포함해 평균 10.72명의 타인과 지속적인 사회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조부모는 평균 12.57명, 여성 조부모는 평균

10.28명으로 성별에 따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0.69$). 연령별로는 65세 미만이 평균 9.5명, 75세 미만이 평균 9.46명, 75세 이상이 17.53명으로, 75세 이상의 고령노인이 상대적으로 넓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대별 사회적 관계의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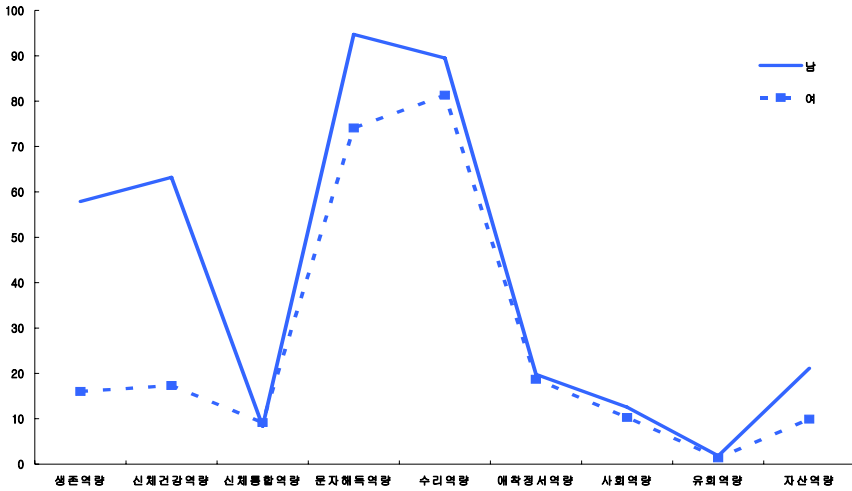
8) 유희능력

조부모가 삶을 즐기는 정도는 0점에서 4점까지의 이론적 가능범위 중 평균 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조부모가 삶을 즐기는 정도는 평균 1.84로 여성 조부모의 평균인 1.37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1.26$). 연령대별로는 65세 미만이 평균 1.39, 75세 미만이 평균 1.32, 75세 이상이 평균 2.06으로, 75세 이상의 노인이 삶을 즐기는 정도가 두 연령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대별 유희의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1.66$).

9) 주관적 재정상태

재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46%의 조부모가 '매우 어렵다', 42%가 '어렵다', 11%가 '그저 그렇다', 1%만이 '여유 있다'고 응답했으며, '매우 여유 있다'고 답한 조부모는 없었다. 재정상태를 '그저 그렇다'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조부모는 남성 조부모의 21.1%, 여성 조부모의 9.9%로 남성 조부모의 주관적 재정상태가 여성 조부모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유의미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chi^2=1.82$). 연령대별로는 65세 미만의 17.6%, 75세 미만의 6.0%, 75세 이상의 18.8%가 자신의 주관적 재정상태를 '그저 그렇다'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대별 재정상태의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3.42$).

<그림 3> 성별 존재실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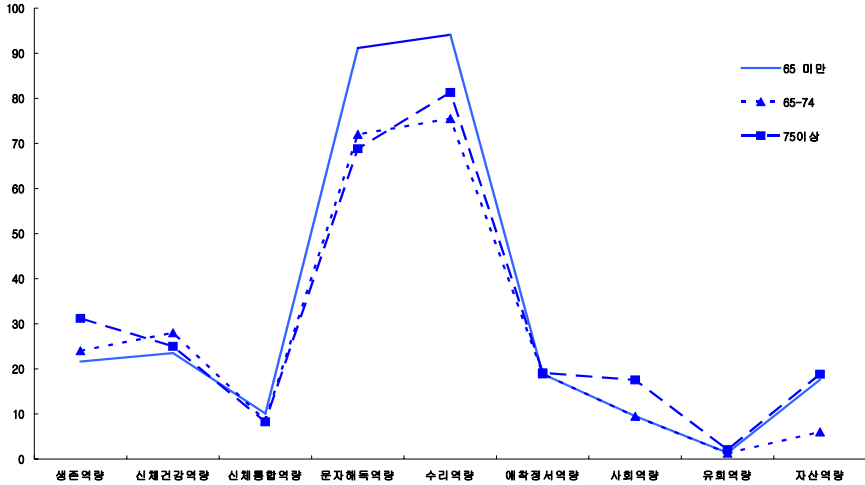
<그림 3>은 남성 조부모와 여성 조부모 사이의 존재실현력의 차이를 보여준다⁴⁾. 대부분의 존재실현력에서 남성 조부모의 존재실현력이 여성 조부모보다 높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질병유무, 신체적 건강, 문제해독력, 수리력, 재정상태에서 남성과 여성 조부모 사이의 존재실현력에서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여성 조부모의 존재실현력이 전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은 선행연구(강철희 외, 2005)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교육을 비롯한 사회적 투자가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누적적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령대별 존재실현력은 전반적으로 65세 이상 74세 이하의 조부모가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⁵⁾. 연령이 증가할수록 존재실현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대부분의 지표에서 연령대에 따른 인간 존재실현력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노화에도 불구하고 인간 존재실현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시사한다.

4) <그림 3>은 남성 조부모와 여성 조부모 사이의 존재실현력을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존재실현력의 각 영역별 비교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실현력의 각 영역별 점수를 표준화하지 않고 원점수를 사용하였다.

5) <그림 4>는 조부모 연령대별 존재실현력을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존재실현력의 각 영역별 비교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실현력의 각 영역별 점수를 표준화하지 않고 원점수를 사용하였다.

<그림 4> 연령대별 존재실현력



2. 조손가족 조부모의 성취된 기능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부담은 평균 19.72로 최대가능점수 40점의 49%에 해당하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소값 8점에서 최고값 39점까지의 비교적 넓은 범주를 보였다. 조부모의 양육기쁨은 평균 16.44로 최대가능점수 20점의 82%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손자녀 양육에 따른 기쁨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실증한다. 특히 선행연구의 주장과 달리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에게 부정적 고통이기 보다 긍정적 성취로서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양육부담은 조부모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5.06$). 남성 조부모의 양육부담은 평균 14.68임에 반해 여성 조부모의 양육부담은 평균 20.91로 여성 조부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양육부담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양육기쁨은 남성 조부모가 평균 16.89, 여성 조부모가 평균 16.33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0.7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 조부모는 남성 조부모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존재실현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손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이해된다. 조부모의 연령대에 따라서는 양육부담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06$). 연령대에 따른 양육기쁨의 차이 역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0.44$).

<표 3>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부담 및 양육기쁨

		사례수	평균	표준오차	t / F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부담 및 양육기쁨					
양육부담	전체	100	19.72	7.19	---
양육기쁨	전체		16.44	3.62	---
성별 양육부담 및 양육기쁨					
양육부담	남	19	14.68	4.04	t = -5.06***
	여	81	20.91	7.27	
양육기쁨	남	19	16.89	2.76	t = 0.73
	여	81	16.33	3.80	
연령별 양육부담 및 양육기쁨					
양육부담	64세 미만	34	20.58	7.84	F = 1.06
	65세 이상 74세 미만	50	19.88	7.12	
	75세 이상	16	17.43	5.75	
양육기쁨	64세 미만	34	16.44	3.86	F = 0.44
	65세 이상 74세 미만	50	16.20	3.65	
	75세 이상	16	17.18	3.05	

주: *p<0.10, **p<0.05, ***p<0.01

3. 존재실현력이 양육기능에 미치는 영향

경로모델의 전반적인 적합지수는 NFI가 0.71, CFI가 0.76, TLI가 0.82, 그리고 RMSEA가 0.08 높지 않으나 비교적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부담은 진단을 받은 질병유무, 주관적 건강, 수리력,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의 관계의 질, 유희, 주관적 재정에 의해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가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질병이 없는 조부모보다 양육부담이 6.8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부모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양육부담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숫자를 읽고 간단한 계산이 가능한 수리력은 양육부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리력을 지닌 조부모의 양육부담은 수리력이 없는 조부모보다 2.46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의 관계의 질은 양육부담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관계의 질이 1단위 증가하면, 조부모의 양육부담은 0.6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부모의 유희역량이 높고 재정상태가 여유로울수록 양육부담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기쁨은 일상생활기술, 문자해독능력, 손자녀와 조부모의 관계의 질, 사회적 관계, 삶을 즐기는 역량, 그리고 주관적으로 판단한 재정상태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의 일상생활기술 능력이 1단위 증가하면 조부모의 양육기쁨은 0.2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가 한글을 읽을 수

<표 4> 존재실현력이 양육부담과 양육기쁨에 미치는 영향

		b	β	s.e.	t
양육부담	질병유무	6.83	0.40	1.28	5.30***
	주관적 건강	0.89	0.14	0.48	1.85*
	일상생활기술	-0.18	-0.07	0.18	-0.99
	문자해독능력	-0.64	-0.03	1.32	-0.48
	수리력	3.60	0.18	1.46	2.46**
	관계의 질	-0.67	-0.39	0.13	-5.14***
	사회적 관계	-0.00	-0.05	0.00	-0.70
	유희	-0.74	-0.14	0.38	-1.93*
양육기쁨	주관적 재정	-1.36	-0.13	0.77	-1.75*
	질병유무	-0.69	-0.08	0.71	-0.96
	주관적 건강	0.19	0.06	0.26	-0.73
	일상생활기술	-0.29	-0.23	0.10	-2.83***
	문자해독능력	1.22	0.13	0.73	1.66*
	수리력	-0.88	-0.09	0.81	-1.09
	관계의 질	0.32	0.36	0.07	4.41***
	사회적 관계	0.00	0.13	0.00	1.68*
유희	0.45	0.17	0.21	2.16**	
주관적 재정	-1.18	-0.22	0.43	-2.74***	

주: *p<0.10, **p<0.05, ***p<0.01

Model fit (df=36) $\chi^2=134.6$, NFI=0.71, CFI=0.76, TLI=0.82, RMSEA=0.08

있는 경우, 한글을 읽지 못하는 경우보다 양육기쁨이 1.2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의 관계의 질과 조부모의 유희역량 또한 조부모의 양육기쁨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의 질이 좋을수록, 조부모가 여가를 즐기고 일상의 재미를 누리는 능력이 높을수록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기쁨 또한 증가했다. 조부모의 사회적 관계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적 관계가 많을수록 조부모의 양육기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조부모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재정상태가 여유로울수록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기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Sen의 인간 존재실현력 관점에 기초하여, 조손가족 조부모의 존재실현력을 성별과 연령대별로 탐색하고, 조부모의 존재실현력이 조부모의 성취된 기능인 양육부담과 양육기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남성 조부모는

여성 조부모보다 전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존재실현력을 보였으며, 일반적 믿음과 달리 75세 이상의 고령 조부모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경제적 존재실현력은 75세 미만의 조부모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족 조부모의 존재실현력 가운데 질병의 유무, 수리력, 손자녀와의 관계의 질은 조부모의 양육부담에, 일상생활기술능력, 손자녀와의 관계의 질, 유희능력, 그리고 재정상태는 양육기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존재실현력에서의 성별차이에 대한 선행연구(강철희 외, 2005)의 결과를 재현하며, 존재실현력에서 여성의 상대적 취약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인적 자본에 대한 성별차이와 여성의 취약성은 선행연구를 통해 상대적으로 견고한 사실로 인정되고 있는 반면, 존재실현력에서의 성별 차이와 여성의 취약성은 증거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의미있는 통찰이 제한되어 왔다. 흥미로운 것은 성별에 따라 선택되고 집중된 존재실현력의 영역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Nussbaum과 Glover(1995)의 전제와 다르게 여성 조부모는 존재실현력의 모든 영역에서 남성 조부모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통적으로 관계지향적인 여성 사회화의 특성상 손자녀와의 관계의 질과 사회적 관계는 여성 조부모에서 높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손자녀와의 관계의 질과 사회적 관계 또한 남성 조부모가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조부모의 상대적으로 낮은 존재실현력은 가부장적 사회질서는 물론 유교 문화적 전통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기회로부터 배제되어온 여성 삶의 누적적 결과로 해석된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 조부모의 존재실현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밝혀진 본 연구결과는 특히 여성 조손가족 조부모의 차별적 욕구를 반영한 성인지적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연령대에 따른 존재실현력의 뚜렷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75세 이상 고령 노인의 존재실현력이 75세 미만 노인과 비교해 유의미하게 취약하지 않았으며, 일부 지표에서는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부분의 능력이 노화할 것이라는 보편적 생각과 달리 연대기적 연령의 증가에도 인간의 존재실현력은 비교적 견고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을 가능하게 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손자녀 양육에 요구되는 일정정도의 존재실현력을 지닌 조부모만이 조손가족 조부모로 생존하고, 상대적으로 존재실현력이 낮은 조부모는 손자녀 양육을 포기함으로써 본 연구대상에 제외된, 대상자 편중의 결과일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인간 존재실현력 패러다임을 통해 설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차자료를 이용한 연구방법의 특성상, 인간 존재실현력의 각 구성요소가 하나 또는 두 개의 지표로 조작화 되는 조작화 빈곤의 한계를

보였다. 더불어 조부모의 정보관리 능력 등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존재실행력의 조작화를 시도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참고문헌>

- 강철희·이홍직·홍현미라 (2005) “실업자의 재취업에 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7(3): 223-249.
- 김미혜·김혜선 (2004)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4(3): 153-170.
- 김정은 (2002) “손자녀를 양육하는 빈곤지역 조부모의 심리·정서적 안녕과 영향 미치는 요인”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선 (2004)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가 손자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8: 85-117.
- _____ (2005) “농촌과 도시지역 손자녀를 전담 양육하는 저소득층 조부모의 정서적 고통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8: 341-378.
- 문선화 (2001)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후견인 제도의 정착 방안” 《한국아동복지학》 11: 7-32.
- 박경애 (2007) “사회적 지지가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보상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2(3): 25-45.
- 박성복 (1999) “삶의 질의 개념형성과 정책지표체계의 예시적 구성-Sen의 capability 개념의 비판적 확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1(4): 835-856.
- 성지혜 (2001) “빈곤한 조부모 손자녀 세대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관한 연구-지역사회복지관 서비스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영 (2007) “조손가정의 형성과정 및 생활실태” 《복지행정논총》 17(1): 203-230.
- 이정화·한경혜 (2008) “농촌 조손가족의 세대관계와 손자녀 양육 조모의 심리적 복지” 《한국노년학》 28(1): 177-196.
- 최규·서병수 (2006) “빈곤연구의 대안 패러다임으로서의 Sen의 가능성 접근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측면과 측정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5: 333-362.

- 최해경 (2002) “저소득층 조손가정 여성노인의 우울감과 관련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2(3): 207-222.
- _____ (2006) “조손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실태와 조부모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29(2): 115-142.
- 최혜지 (2008) “조손가족 조부모의 우울의 실태와 작용기제에 관한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9: 122-149.
- 홍현미라 (2005) “실직여성 고용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인적자본관점과 인간능력관점에 대한 비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3: 321-344.
- Burton, L. M. (1996) “Age Norms, the Timing of Family Role Transitions, and Intergenerational Caregiving among African American Women” *The Gerontologist* 36(2): 199-208.
- Fukuda-Parr, S. (2003) “The Human Development Paradigm: Operationalizing Sen’s Ideas on Capabilities” *Feminist Economics* 9(2/3): 301-317.
- Goodman, C. C. (2005)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in Skipped-generation Grandfamilies” Presented at the 58th Annual Scientific Meeting of the GSA, Orlando, Florida.
- Nussbaum, M. (2007) “Human Right and Human Capabilities” *Harvard Human Right Journal* 20: 21-24.
- Nussbaum, M., and J. Glover (1995) *Women, Culture, and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Inc : N.Y.
- Robeyns, I. (2003) “Sen’s Capability Approach and Gender Inequality: Selecting Relevant Capabilities” *Feminist Economics* 9(2): 61-92.
- Sen, A. (1997) “Editorial: Human Capital and Human Capability” *World Development* 25: 1959-1961.
- Shin, H. R. (2008) “A New Insight into Urban Poverty: The Cultural of Capability Poverty amongst Korean Immigrant Women in Los Angeles” *Urban Studies Journal* 45(4): 871-896.
- [2009. 10. 28 접수 | 2009. 11. 18 심사(수정) | 2009. 11. 28 채택]